

특 집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교회

성도의벗 3
1969

1967年 10月 4日
공보부등록 라-932





영감의 멧세지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십이사도 보조)

말일성도는 단순히 건축 및 구조학상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하여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평범한 예배 장소로 이것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신전이 건립되면 특별히 성신권의 여러 의식을 집행할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 딸들의 덕성 함양과 엔다우먼트를 위해서 헌납됩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속해있는 사람들 까지도 이러한 신전 의식이 “또 나는 이 집에 관한 모든 일과 그 집에 관한 신권과 그 집이 세워질 장소를 나의 중요성에 보여 주리라.” (교성 124:42)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권 의식은 현재도 집행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신전에 국한된 계시”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흔하고 평범한 방법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이나 다름 없이 “굽추리고 갈증을 느껴”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으며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즉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게 될 영생과 승영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전 의식은 지적인 영원한 발전과 성장, 끝없는 축복,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되는 생활을 약속해줍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9년 3월 1일

(통권 제44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제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해설 :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 오지리, 스위스의 사진을 이 번호의 표지로 골랐습니다. 왼쪽 윗 것은 오지리 잘즈카머구트에 있는 아름다운 성 길렌이며, 오른쪽 위의 것은 베른에 있는 스위스 신전이며, 왼쪽 중간의 것은 라인강을 굽어보는 중세기의 성, 오른쪽 중간 것은 스위스의 하늘에 솟아오른 장엄한 매터혼,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스위스 르제른에 있는 비르발트스탈테르 호수에 세워진 예배당 다리입니다. 스위스 신전의 사진은 교회 안내소에서 제공한 것이며, 그 외의 모든 사진은 메인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뢰빌트가 촬영한 것입니다. 본문 5페이지의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교회”를 참조하십시오.

제5권 제3호

순서

1969년 3월호

권두언 : 높은 산을 바로 밑에서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작가와의 따뜻한 밥 제니스 헛친스 2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교회 제이 엠. 토드 5

관리 감독단 페이지 : 나는 정말로 누구냐? 10

현대의 경전—교리와 성약 티. 에드가 라이언스 12

같은 목소리 13

주일학교 페이지 : 모든 사람을 위한 것 리드 에이취. 부켄포드 14

상호 부조회 : 적은 일이 중요할 루이스 떠블유 메드슨 17

청소년편 : 기도의 초상화 베니스 드레이크 18

듣는데 인색하지 말아요 라인 베이커 19

꿈만으론 불충분하다 도나 그레고리 21

계보 : 새롭고 간편한 성명 제출 방법 23

선교부장 멧세지 :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서 현보 25

지방부장 멧세지 : 주님의 겸손한 태도 배 영천 26

내외소식 27

어린이 성도의 벗

스페인 동화 : 보호의 모자 89

일본 놀이 : 오니와 개구리 92

동화 : 항구에서 93

만화 96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나라 말로 출판하여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 전해진 예언자의 간증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2 : 17)

소년 요셉이 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이웃은 그의 말을 믿기는 커녕 그를 조소하고 뺨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엄숙하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시는 것을 보았고 그 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

높은 산을 바로 밑에서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 어떤 사물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면 그 완전한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높은 산 바로 밑에서 산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최근에 있었던 큰 발명과 발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대한 산 허리, 우뚝 솟은 정상, 주위의 웅장한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보는 것 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위대한 일의 성취가 그 얼마였습니까? 앞으로 보여질 가능한 세계는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전자계산기, 자동차, 비행기, 혹은 원자 에너지가 물질적인 방향에서 사회에 끼친 공헌이 어느 정도라고 규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현대인이 의학계에 이루어 놓은 결과가 전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갈망해오던 문제에 관하여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두고 추구해 온 것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었고, 망원경으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주 비행사와 인공위성도 그분이 계시는 곳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세기 반 전에 있었던 사실로 이러한 문제의 답은 인간의 영혼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란 바로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하늘에 계시는 두 분이 나타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 주신 일입니다.

이는 소년의 간절하고 진실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820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 : 25)

만약 이와같은 간증이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간증이 지닌 의미는 매우 컸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의 마음으로는 믿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철했던 목격자들이 예언자의 간증을 지지했으며 이들의 증언은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영감에 의해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이미 없다 하여도 교회는 이들 명확한 위대한 계시로 인하여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와 그의 형 하이럼 및 이 위대한 계시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이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바와같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길을 제시하고 예언자와 축복자에게 보여진 계시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으므로 그들은 피로써 이 갈등을 인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이후 신권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전히 조직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때를 초월한 위대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및 우주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위치를 알려주는 요소가 되며 개인 및 집단으로서의 적절한 인간관계 및 국가인으로서의 적절한 인간관계를 조성시키는 수단이 되며 나아가서는 장래에 있을 영원한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인간이 행복하고 화평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계시가 되고도 남습니다. ○

자장가와 따뜻한 밥

제니스 헛친슨

“이제 조용히 해,
아가야,
이젠 그만 울지?
울지,
내가 어머니 노래를
불러 줄게.

있잖아. 네가 더러우면 그 사람들이 받아 주지 않을 거야.”

그는 일어서서 누이동생을 건도록 끌었으나 누이동생은 자꾸 걸려 넘어졌다. 그리고는 계속하여 중얼거리기만 했다.

“오, 수잉아.”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시면 무어라고 하실까?”

콩크리트 조각 위엔 털썩 주저앉아서 잠시 동안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는 긴 한숨을 쉬더니 두 살 먹은 누이동생을 바라보았다.

수잉의 턱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배 고프지 수잉!”

동생이 다시 울기 시작하자, 쉐는 자기 귀를 막았다. 얼굴은 파리했으며 눈에는 12살 된 소년이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재빨리 수잉을 잡아다녀 무릎에 앉히고는 팔로 부드러우면서도 든든하게 감싸주며 몸을 앞으로 흔들려 주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이와 똑같이 하는 것을 여러번 보아 왔으나 목이 굳어지고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았다. 특히 그는 요즈음 며칠 수잉이 그저 울어대기만 하자 더욱 난처했다.

“이제 조용히 해 아가야. 우리 아가 이제는 그만 울지! 울지, 내가 어머니 노래 불러줄 줄게.”

“조용히 밤이 다가 온다.

내 품에서 편히 쉬거라.

조용히 우리 어린 아가야.

눈을 감고 편히 쉬거라……”

● 쉐는 누이동생의 조그만 손을 움켜잡고 부서진 탐 사이를 지나서 반대편 쪽으로 뻗쳐 있는 황폐한 거리로 나왔다.

그는 갑자기 서서 버티는 동생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

“수잉아 일어나 걸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쉐는 한숨을 쉬고 몸을 굽혔다. “이것 봐. 깨끗한 옷에 얼룩이 묻



꽃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고개를 숙여 자장가가 효력을 발휘하여 편안하게 자기를 기대하면서 누이동생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수잉의 울음 소리는 드디어 가냘픈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첸이 계속하여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귀에 익은 노래를 흥얼거리자 딸국질을 간간히 하는 정도로 줄어들었다. 누이동생의 눈꺼풀이 감겨지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는 자장가가 주효했던 것이다.

자장가는 좋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가 자장가를 듣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자장가를 기억하여 동생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뻐다.

주위를 둘러보며 수잉을 잡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는 헤어진 소매로 동생 얼굴의 눈물 자국을 씻어 주고, 어제 빗물을 받아 힘들여 빨아 깨끗이 해준 치마의 구김살을 펴주었다. 그리고서는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고 가슴에 꼭 껴안으면서 주의하여 몸을 일으켰다.

첸은 천천히 걸어서 파편으로 상처난 길 거리를 지나 마을의 외곽에 이르러 흙탕물을 튀기며 질퍽한 눈을 건너가고 있었다. 수잉이 몸을 뒤척이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다.

“취... 이제 다 왔어.” 하며 눈 앞의 불빛을 가리켰다.

그는 동생을 한 팔로 옮겨 등에 업었다. 수잉은 작은 소리로 흐느껴 울더니 머리를 오빠 어깨에 묻고 다시 눈을 감았다.

마을에 이르러 첸은 어두운 거리를 걸어 내려가며 폐허가 된 건물 구석에 구부러 무엇을 하고 있는 남루한 두 농부를 지나쳤다. 길 끝에는 입구에 조그만 간판이 붙어

있는 큰 건물이 있었다.

잠시 동안 주위를 둘러 보던 첸은 옆 길로 걸어 내려가 건물 뒤에 있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그의 걸음은 한층 느려졌으며 수잉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울 때 그의 목은 굳어져 있었다.

“그만 자, 아가야. 이제 다 왔다.”

그는 수잉을 자기 옆에 내려 놓으면서 커다란 벽에 기대었다. 자기 여행의 목적지인 좁은 길 건너에 있는 커다란 아취 모양의 문을 응시하였다. 놀란 새날개 모양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잉을 좀더 가까이 느끼면서 어둡고 조용한 좁은 길을 보더니 이윽고 시선이 닫혀진 문으로 쏠렸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간신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같이 소리를 내었다.

“예쁘구나.”고 말하면서 첸은 주머니에서 조그만 빛을 꺼내어 아기의 검은 머리를 빗겨 주었다.

수잉은 얼굴을 들어 미소로 대답하며 작은 손을 올려 머리를 툭툭 두드렸다. 눈물이 갑자기 첸의 눈에 고였으나 재빨리 닦아 지웠다.

“네 옷은 펜찰을 거야.” 가능한 한 주름을 펴면서 말을 툭 내던졌다.

그리고서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어 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으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다.

“제발 내 누이 동생을 보살피 주십시오. 부모님께서는 몇 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열 두 살인 저로서는 어린 누이동생을 위해서 더 이상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택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수잉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는 쪽지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읽어 본 후 수잉의 손에 힘없이 들려주었다.

“문 옆에 가서 서 있어야 한다.” 쉐이 떠나려 하자 수잉도 따라가기 시작했다.

“아냐, 아냐.” 그는 동생을 부드럽게 밀었다.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곧 돌아올게……”

이 마지막 말은 목에 걸려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것을 부모들이 언젠가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랐다.

몸을 굽혀 쉐은 누이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목을 꼭 잡고 있는 동생의 팔을 간신히 빼어 놓았다. 숨을 깊이 들며 마시자 체스민의 향기를 맛보는 것 같았다. 이 향기가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 주는 것 같아 애써 웃어 보려고 했다.

“아가야, 여기엔 커다란 축복이 있단다.” 전물의 커다란 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곳에서는 네가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밤에 자면서 울지 않아도 된단다. 침대에서 자게도 되고. 생각해 봐, 수잉아. 따뜻한 이불을! 이곳의 훌륭한 분들이 너를 돌보아 주실거야. 미국으로 보내 주실지도 몰라. 그렇게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쉐은 고개를 약간 숙였다.

“네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몇 그릇이고 밥을 먹어도 꽤 좋은 미국이라는 곳은 훌륭한 나라야. 아마 어떤 예쁜 여자가 추운 네 발에 신을 신겨줄 것이고 찌저진 네 치마도 기워줄 거야.”

찢어진 곳을 내려다 본 수잉의 눈에는 눈물이 차기 시작했다. 쉐은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 헤진 곳에 신경을 쓰지마. 그 사람들은 네가 착한 아이니까 곧 사랑해 줄거야. 아마 여자가 너를 안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자장가도 불러 줄거야. 나는 그런 것을 잘 못해.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야.”

수잉은 오빠가 쥐어준 쪽지를 들고, 오빠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들은 온 가족이 모두 행복한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네. 왜 그런지 아니?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옷도 기워주고 밥도 따뜻하게 해 주기 때문인 거야.” 그는 슬픈듯이 고개를 젓더니 “수잉아, 나는 이런 것들을 네게 해 줄 수가 없어.” 하고 말했다.

수잉은 두 살된 아기로서는 지나치게 진지해 보였으며, 이를 본 쉐은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아니지,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모를거야…… 그리고 기억하지도 못하겠지.” 쉐은 한숨을 쉬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기가 힘들었다.

“잘 살기를 바란다, 수잉아……”

그는 신속하게 눈물을 닦고는 현관으로 안고 갔다. 팔

을 올려 힘없이 문을 몇번 두드리고는 골목 끝으로 빨리 뛰어갔다. 눈이 둥그래진 수잉은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를 따라 왔다. 쉐은 빨리 들어 안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울지마. 그 곳에 있으라고 했잖아!” 쉐은 무겁게 문 쪽을 가리켰다.

“이것봐, 누가 문을 열거야. 그 사람에게 종이를 쥐… 문을 지켜보란 말야!”

수잉은 고개를 돌려 잠시 동안 노란 빛이 흘러나오는 문을 떨리는 턱을 억제하며 주시하였다. 이러한 몇 초가 바로 쉐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몇 미터를 뛰어가서 조그만 문 그림자에 몸을 숨겼다.

쉐은, 숨은 곳에서 고개를 내밀어 문이 열리고 불빛이 수잉에게 환하게 비치는 것을 숨을 죽이며 지켜 보았다. 수잉이 밖으로 나온 두 여인을 올려다 보는 것을 보고는 쉐은 침을 꿀꺽 삼켰다. 수잉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여인은 팔로 부드럽게 수잉을 감싸고 있었다. 쉐은 이 여인이 수잉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아기는 미소로 답하는 것을 보았다. 쉐도 열린 미소를 잠깐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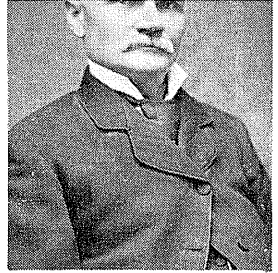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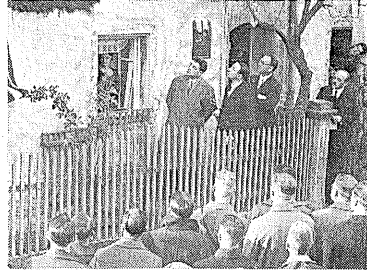
수잉은 쪽지를 내밀었다. 두 번째 여인이 쪽지를 받아 읽는 동안 쉐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다 읽고 난 여인은 돌아서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짓을 했다. 그러자 안에 있던 여자들이 나왔다. 쉐은 놀라움과 관심에 가득찬 그들의 표정과 고조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 수잉 옆에 꿇고 앉아 있던 부인이 아기를 팔에 안고 안으로 들어가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다. 문이 휙 닫히면서 골목에는 다시 한 번 적막이 흘렀다.

쉐은 움푹 파진 곳에서 몸을 일으켜 커다란 큰 통에 얼마 동안을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어찌서인지 더 깊은 적막에 사로잡힌 그는 때때로 수잉이 서 있던 어두운 골목을 쳐다보곤 했다. 그는 단추가 떨어진 곳을 꼭 여미며 묻지도 않은 먼지를 꼭 털어 버려야만 하겠다는 듯이 손으로 바지를 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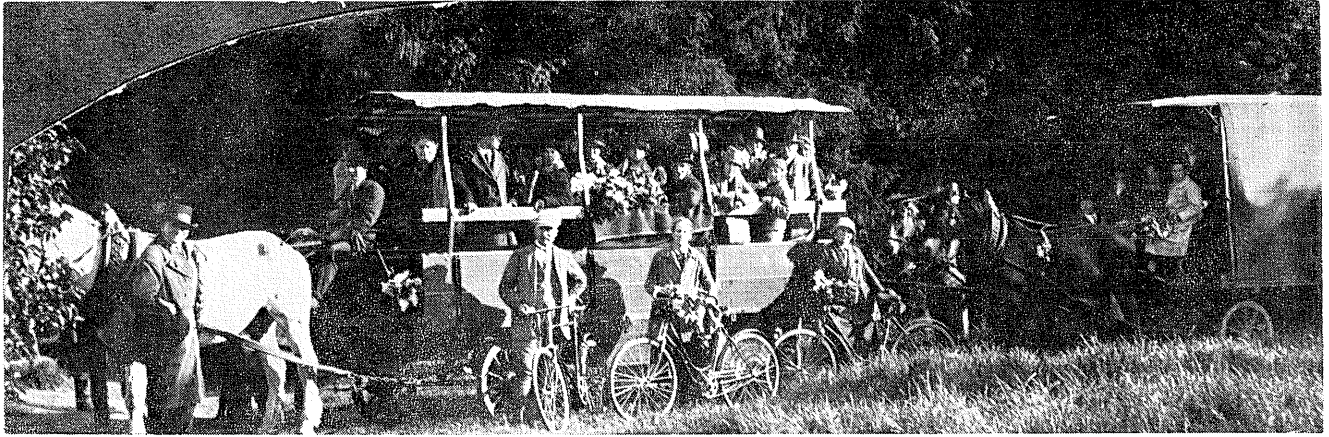
쉐은 그 여인이 수잉을 팔로 안는 것이 기뻐다. 또한 그 여자도 자장가를 부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그는 하늘을 우렐어 보았다. 하늘에서 새벽의 여명이 비치기 시작함에 따라 은하수는 빛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골목을 걸어 올라 가면서 조그만 돌을 발로 찼다.

주저하더니 그는 다시 뒤로 돌아 불이 있는 문을 보았다. 고개를 약간 끄덕여했다. 수잉은 자장가와 더운 밥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잘 깊은 한숨을 쉬더니 허리를 곧게 폈다. 밤의 그림자는 아침의 빛이 건물 사이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기뻐다. 그렇다. 쉐은 오늘이 실로 감사의 날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했으나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의 발은 무겁기만 했으며 마음 속의 공허함은 메울 길이 없었다.○



上右 : 1941년 이 마을을 저 마을을 방문하던 때의 선교사. 上中 : 칼 지. 메쎬르가 탄생한 곳. 1923년 1월 16일 벽걸이를 걸다. 上左 : 초기 독일의 개종자로 부리감 영 학교의 설립자였던 칼 지. 메쎬르.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교회

제이 엠. 토트

(임프르브먼트 이라 부편집인)

● 젊은 물몬 선교사들이 미국으로부터 게르만 국가로 처음 건너가기 시작한 19세기의 후반에서 20세기의 초기에 이르는 동안 이들 나라보다 세력, 재력, 교육, 과학, 문화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보인 나라나 민족은 없었을 것이다.

재능과 고매한 정신을 가졌던 게르만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인류가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고 하겠으니 말틴 루터, 피테, 바하, 베테벤, 와그너, 코페르니크스, 칸트, 그리고 문자 그대로 수 십명의 사람이 그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있어서 독일은 초기의 모든 과학분야의 첨병이었으며, 유명한 대학은 전세계 대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대륙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과 산업을 소유한 나라로서 존경받고 있었다. 독일은 소란하고 독단적인 나라에서 1871년 비스마르크 통치하에 와서야 도시와 공화국이 하나로 합쳐 독일이라는 나라로 형성된, 유럽의 제국가 중에서 가장 연소한 국가였다. 이러한 지적, 군사적 자부와 산업상 궁지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어 말일성도의 선교사는 겸손과 평화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실로 어려운 과업이었다.

그러나 독일 땅에 발을 디딘 첫 교회의 회원은 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철물공장에서 일하려고 함부르크에 건너온 제임스 하우워드라는 영국인 개종자로 알려졌다. 영국에 있는 형제들의 요구로 그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으나 여건이 위와 같은 것을 알고 1840년 9월 13일 자기 부인에게 한 편지에서 “나는 너무나 미약하여 함부르크에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소.”라고 썼다.

비록 오스 하이드가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는 동안 독일에서 10개월 동안 머무른 적은 있었어도 이후 10년 동안 게르만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힘쓴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1851년 독일에서 행해진 칙례에 관한 이전의 기록은 없다. 이 1851년의 칙례가 있는 후에도 정부의 계속적인 반대로 주님의 말씀은 느리게 번져나갔다. 즉 처음에는 선교사,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적은 형태의 이 나라로부터 추방되었다. 물몬경이 독일어로 출판되고 3년이 지난 1855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165명의 회원이 교회에 참석하였던 것이며 1854년에 스위스에서도 별로 신 통치 않아 개종자의 수가 144명에 불과하였다.

18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막상 개종자 수가 현저히 증가하기 전까지는 전망이 밝지 못하였다. 독일인 개종자이

며 독일과 스위스 선교부 관리자로 부름받은 칼 지. 메세르는 1868년에 “전 선교부에 걸쳐 요사이 미풍 앞의 물결과 같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 보이며 다른 영이 도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보고한 일이 있다.

메세르 형제가 1870년에 프로보에 있는 새로운 브리감 영아카데미를 관리하기 위하여 유타에 다시 돌아갈 때에는 약 600명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스위스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전형적인 반응은 씨. 더블유. 윌켄 장로가 보고한 것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된다. “독일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찬사가 나타나며 계시를 사람이 받는다는 것을 믿을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내가 홀스타인에 있을 때 그러한 허황된 이야기는 인디안에게는 고지들릴지 모르겠으나 개화된 사람들에게는 조소의 대상밖에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어서는 수 천의 개종자가 교회를 찾는데 반하여 게르만 민족의 국가에 있어서는 20세기에 들어서기 까지도 성과가 미미한 것이었다. 간혹 가다가 생긴 지부는 단명하여 곧 폐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무감각한 대중, 차거운 정부의 반응만이 회복된 교회를 괴롭혔던 것이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개종시킨다는 일이 아주 드물었으니 1860년부터 1960년까지 개종자 칩제 연례 보고는 1862년의 최고 기록인 300명을 초과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교회로 개종했던 사람들은 조만간 말일성도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면 미국으로 이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곤 하였는데 이것은 약 30년전까지만 하여도 게르만 국가의 성도들이 밟았던 유형이었다. 이러한 이민 의욕은 1875년 독일 경제의 붕괴에도 원인이 없지 않다. 그 해의 경제붕괴 이후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의 수효는 약 2백 5십만명이나 된다.

매년 새로운 선교사가 도착하였고 매년 “도시에서 한 사람, 가족에서 두 사람”(예레미야 3 : 14 참조)이 칩제의 물을 찾아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혹은 음성적인 혹은 노골적인 적대감정으로 진리의 사자들을 맞았으니 그 정도가 어떠하였는가는 선교 역사에서 인용된 다음의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스터키 부장은 소책자 발행 죄목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1875. “장로들이 투옥되고 추방되었음.” …1880. “첫개 종자가 오지리에서 칩제 받았다.” …1883. “회중을 체포하며 선교사 색출에 나섰다. 서적은 몰수되었다.” …1897. “씩소니 지방에서는 주일학교 집회를 불허하며 18세 이하의 미성년에게는 집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통고를 받음. 소책자 발간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함.” …1900.

최소한 부분적으로 20세기는 독일에 새로운 기풍을 열어주었다. 대관장으로 있으면서 해외여행을 처음 한 요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독일을 방문하였다. 그 일년 후에 스위스 및 독일을 관리하던 씨즈 에프. 벨러프 선교부

장은 “내가 이곳 저곳을 방문하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많은 무리를 보았으며 이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뼈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느낌은 바른 것이었으니 그후 3년 내에 2,5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전 게르만 민족국가의 칩제 기록을 깨뜨린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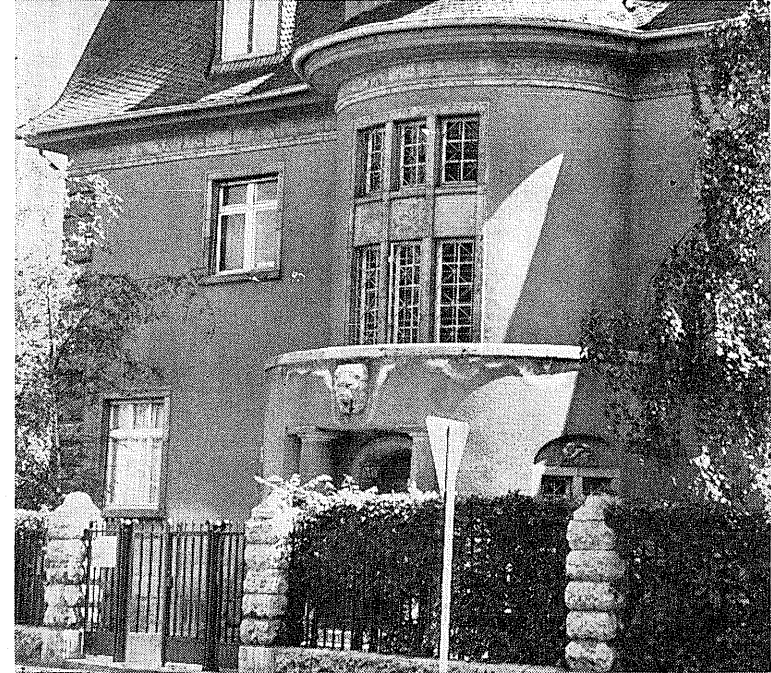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인이 기초가 된 교회에 대한 저항은 줄어들지 않았다. 4년 후인 1914년 8월 30일에 교회 본부에서는 놀라운 전문을 독일 교회에 하달했다. “즉시 모든 선교사를 런던에 도착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 스위스와 독일의 60여개 지부로부터 200명에 가까운 선교사가 런던을 향하여 출발했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3년 후인 8월에 앵거스 제이. 캐논 형제는 독일 전역에 걸친 지부 방문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의 보고 내용은 “많은 교회役員 및 회원이 군에 징집당하였으며 개종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전쟁의 피해는 어떤 지부는 해체로, 어느 지역은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지부는, 사실은 거의 모든 지부가 그랬는데, 계속 모종의 조직을 간직하고 회원의 동태를 파악했으며 언제 어디서 가능한대로 집회를 가져왔던 것이다……”는 것이었다. 20년 후에 아돌프 히틀러가 “지도자”로서 등장하였을 때도 같은 양상을 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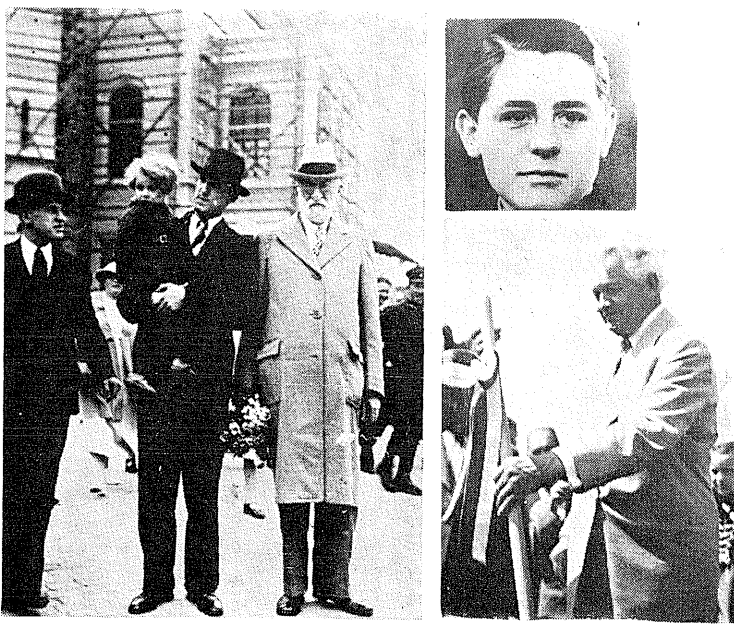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20년 동안의 게르만 국가의 교회 이야기는 가장 재미있는 것이 된다. 세계에 다시 평화가 깃들게 되자 평화의 사자의 계획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의 심령에 깃들기 시작하였다. 1920년에 스위스—독일 선교부를 다시 돌아본 씨즈 에프. 벨러프 선교부장은 “선교부에는 60명 이상의 선교사가 있으며 이들은 전대나 주머니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들은 겸손하고, 늘 기도 하며, 깨끗하고 순결하였으며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모두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1925년에 이르러 게르만 선교부는 종래보다 몇 배나 회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6,125명의 회원을 가진 독일—오지리 선교부와 5,305명의 회원으로 된 스위스—독일 선교부로 나뉘게 되어 게르만 민족의 성도는 11,000을 넘게 되었다.

이것은 꾸준하고 확고한 성장의 기틀이 된 것이었다. 오늘날 광고관계 책자의 한 페이지를 들추어보면 1930년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은 교회 백주년 기념제를 전 시회를 곁들여 가졌는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드레스덴의 전시회에서는 지혜의 말씀에 관한 250,000부 이상의 인쇄물을 배포하였고, 베른에서 성도들은 위생 및 체육 발표회로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었다. “독일 신문으로부터 이보다 더 호의적인 평을 들어본 일이 없다”고 프 레드 타드에 선교부장은 말하였고 유럽 선교부장이었던



좌 : 독일 프랑크푸르트소재 독일 지역의 본부건물. 이 건물은 건축, 법률, 번역, 계보,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다.
 중간 : 1934년 브레스라우에서의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 옆 사람은 지방부장 베르너 마르틴 호프. 다른 사람은 지방부장의 아들과 지방부장 제1보좌 리차드 더스.



우상 : 함부르크 지방부 성 죠오지 지부의 회원인 헬무스 후너. 그는 1942년 10월 27일 17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받았다.
 우하 : 1953년 스위스 신전 기공식에 참석하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

존 에이. 윌소우 장로는 독일과 스위스 성도에 관하여 “교회에 이들보다 충실하며 헌신적인 사람들은 없었다.”고 간결하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악마의 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나치 군사의 군화 소리가 높아졌으며 교회에대한 나치정권의 태도는 곧 정체를 들어내고야 말았다. 1933년 5월 나치 군대들은 성도들의 회합을 방해하였으며 같은 달에 독일의 다른 지방에서는 정복을 입은 나치 군인이 두 선교사를 구타하였던 것이다. 1934년에는 교회 소년단이 해체되고 “신성한 권능”이라는 소책자는 출판 금지를 당했다. 일년 후에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의 “신앙개조 연구가” 불온 문서로 되고, 소각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1937년에는 기타 교회 책자에 대한 배포 허가가 대부분 취소되었고, 일년 후에는 종교적인 임무수행에 종사하고 있던자를 “최고 반역죄”로 투옥 시키고는 했다. 히틀러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곤경에서도 의의 힘은 앞으로 올 날을 예비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1935년 7월 2일에는 독일에 있던 모든 선교사에게 독일인을 각 지부의 장과 보좌로 성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주님의 충실한 성도들을 신권 원리 내에서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지시는 지나치게 빨리 내려진 것이 아니었으니 1939년 8월 25일에 12사도 정원회의 죠셉 필딩 스미스 장로가 독일에 건너와서 모든 선교사에게 곧 떠나도록 전하였다.

세계제2차 대전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영감에 찬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으니 엠. 더글라스 우드 선교부장은 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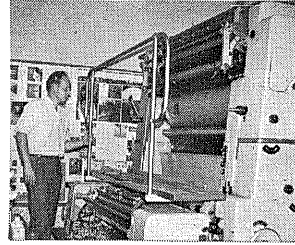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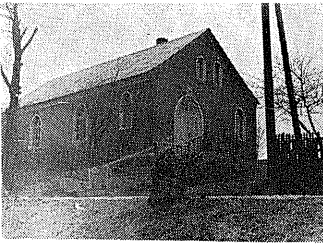
가 크고 200파운드나 되는 아이다호 출신 장로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장로, 이곳과 화란 국경 사이의 지방에 있는 31명의 선교사가 소재불명이 되어 있으니 그들을 찾아서 출국하도록 하시오.”하고 지시했다.

이 젊은 장로는 500마르크와 덴마크와 런던행 차표 몇 장을 가지고 떠났다. 이 일을 수행할 때에는 전적으로 자기 의견에 따라 행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던 것이다. 그는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서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콜롱은 목적지가 아니었으나 그 곳에서 내리고 싶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역에는 수 천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으니 어떻게 잃은 선교사를 찾을 수 있었겠는가? 그는 “의의 일하세”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역 한 구석에서 어느 장로와 결혼한 선교사 부부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들은 재빨리 덴마크행 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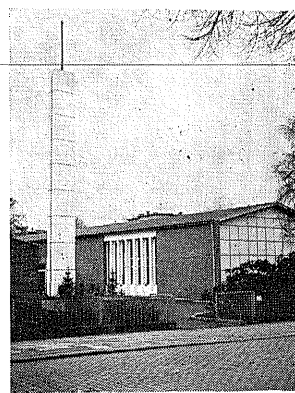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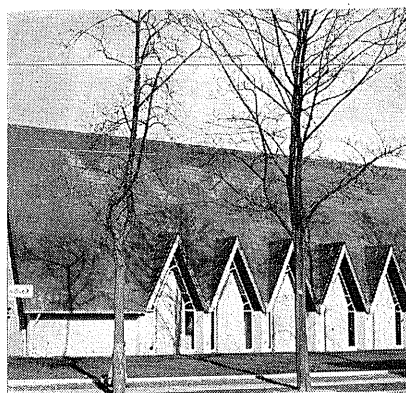
이 키 큰 장로는 다시 기차를 타고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되 자기가 내려야겠다는 느낌을 갖은 곳이면 마을마다 내려서 사명을 행했던 것이다. 영감에 인도되어 그는 17명의 선교사를 찾아 그날 밤으로 독일에서 벗어나게 했다. 조금 후에 교회 본부에서는 모든 선교사가 독일 국경을 벗어났으며 한결같이 무사하다는 보고가 달았던 것이다. 9일 후에 불란서와 영국은 선전포고를 했다.

전쟁 기간 동안 독일과 오지리 교회의 이야기는 영감적인 사건으로 충만해 있다. 어느 누구도 나치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으나 세 명의 젊은 회원은 그렇지 않았다. 영국 방송을 들은 후에 이 젊은이들은 그것을 프린트하여 공공 장소에서 배포하였던 것이다. 이들 중의 한

아직까지도 이곳에서 집회를 보고 있다.



1966년 “젊은이 대회”에 참석했던 젊은이들이 라인강을 걷고 있다.



베르린 렌크위즈 와드의 예배당. 1964년 3월 1일 벤슨 사도에 의해서 헌납되었다.

함부르크 스테이크 센터



1965년 “젊은이 대회”의 마지막 순서였던 무용 경연대회. 뒤에는 상향회 표식이 보인다.

사람인 헬무스 구닷트는 “최고 반역죄”로 사형선고를 받아 도끼로 참수형을 받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집단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오늘날 함부르크에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한 말일성도인 젊은 구닷트 형제를 기념하기 위한 건물이 서 있다.

공습으로 재산을 한꺼번에 잃은 성도를 위하여 의류 수집에 나섰던 여러 지부의 이야기는 뼈속 깊이 사무치는 것이다. 자기들도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루르지방의 회원을 돕기 위한 알토나 지부의 노력 등은 특기할만 하다.

연합군의 폭격이 한창 심했던 1943—44년 사이에는 성찬식과 주일학교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그들이 영감을 받고 피하여 공습을 피한 예가 많았다.

중전이 임박한 1945년에 빌리 테베르즈 지방부장은 “지옥의 불꽃 같은 문이 열렸다. 비행기가 계속하여 기차를 폭격하므로 지부 방문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밤에도 마음놓고 쉴 수가 없다. 15세의 어린 소년으로부터 50세 이상의 노인들도 ‘국민대’라는 이름으로 소집당하였기 때문에 보조조직의 형제들도 징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치를 따지는 것은 미친 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전쟁은 공포와 파괴를 가져와 수 백만 독일 사람의 집을 빼앗고 죽음을 불러왔던 것이다. 600명 이상의 성도가 죽임을 당했고, 2,500명이 북부중이었으며 80퍼센트 이상이 집을 잃었다. 브레멘에서만도 95퍼센트의 성도가 집을 잃었다. 식량이 부족하여 단지희의 성도들은 “꿀, 고양이, 개, 소량의 감자, 죽은 동물로 연명하였다. 노인과 병자

들은 이러한 것이나마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소위 음식도 십일조를 내라고 권장하여 제일 궁핍한 사람에게 주었다.” 복음의 힘과 유효성에 관하여 더 훌륭한 간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포, 기아, 결핍의 도가니 속에서 시련받고 인간의 가장 악한 표현인 전쟁의 희생 가운데도 신앙심 있는 성도들은 사랑과 형제애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1945년 히버 제이. 그랜트 대판장이 돌아가시자 몇몇 지부에서는 추도 모임을 열었다. 베를린에서는 175명 정원인 방에 300명 이상의 성도가 운집해 있었다. 이 중에는 미국 군인과 여자가 많이 끼어 있었다. 선교부 보고서에 보면 “어느 경우에도 카키복을 입은 사람은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문에서 ‘형제님이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네’라고 대답을 하면 문을 활짝 열어 주었으니 ‘형제’라는 말이 일종의 암구호가 되었던 것이다”

국가, 국민, 가정과 가족, 나아가서 자신의 생활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는 가장 관심사가 되었다. 몇달 지나지 않아 12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회원 복지 원조의 필요를 측정하고 궁핍한 성도들에게 의복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독일에 왔다.

일 년 후에 화란 성도들은 독일 성도들에게 감자를 보냈는데 모든 독일 성도는 한 사람 앞에 25파운드씩 배급을 받았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판장은 이 행위를 “참기독교인의 행동으로서 나의 주의를 끈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라고 하셨다. 다시 한 번 복음의 결속은 국가적 장애를 극복했던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 교회 대회

가 열렸는데 1945년 서독의 신권대회에는 800명 이상의 사람이 참석했으며, 동독 선교부 대회에는 유럽에서의 최고 기록인 11,981명의 사람이 라이프찌히 대회에 참석했던 것이다.

1947년에 이르러 소수의 미국인 선교사가 독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이 건우어들일 발은 곧 줄어들었으니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소련이 위성자의 음모를 들어내어 베르린 장벽을 쌓은 것이다.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대본을 마약 쓰러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독일은 오늘날과 같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서독에만이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과거 18년간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선교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이루어 놓은 일의 일부분을 보는 것과 같으니, 이를 간단히 보면 놀랍게도 다섯 개의 스테이크(베르린, 함부르크, 슈타트가르트, 스위스 및 유럽에 주둔하는 수 천의 말일성도 군인을 위한 유럽 군인 스테이크), 여섯개의 선교부, 스위스 베른의 신전, 법적 문제, 부동산, 건축, 제보 사무실, 인쇄, 번역, 자료 배포를 만드는 프랑크푸르트의 유럽 대륙 교회 본부, 호의적인 대중, 정부 및 언론 관계로 볼 수 있다. 맥케이 대관장은 1952년 스위스와 독일을 여행하므로서 이러한 특기 할만한 업적에 발판이 되는 기쁨을 세웠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찬송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삼년 후에 태버나클 합창단은 스위스와 독일을 여행하였으며 스위스 신전의 헌납식에서 노래를 불러 지대한 우의를 굳혔으니 두 나라 사람들에게 물문의 선함과 이름다움을 동경하도록 만들었다.

신전 헌납의 개회 모임에서 벤슨 장로는 “이 모임은 118년전 복음이 구라파에 전해진 이래 이 대륙에서 있었던 교회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구라파에서 성도

들이 보여준 신앙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오늘날에는 30,000의 게르만 성도가 독일, 오지리와 스위스에서 현대 자유와 문명의 이기와 발전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교회 사람들은 좋은 인식과 존경을 점차 더 받고 있다. 많은 구라파 사람들은 매주 방송되는 미군 방송의 태버나클 합창단에 귀를 기울인다.

언제나와 같이 교회는 젊은 선교사가 들쭉 짝지어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예배당, 스테이크 쉼터, 그리고 뛰어난 말일성도라는 새로운 상징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교회 회원에는 부유한 실업자, 유능한 기술자, 신문 편집인 및 기자, 의사, 치과의사, 교사, 대학 교수, 건축가 그리고 유명한 예술가가 적지 않다.

현대의 교통 수단은 이러한 성도들을 교회 본부에 굳게 결속시켜 주며 일반 총회의 순서는 그들 지부와 와드에 우선으로 직접 증계된다. 이 외에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은 금년에 100주년을 기념하는 “별” —성도의 벗—이라는 교회 잡지를 통하여 영감적이고 건전한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17개 국어로 발행되고 있는 교회 잡지의 부분으로 교회 지도자에 의하여 이끌어지고 있다.

독일 청소년 대회는 1년에 2회 열리는데 이것은 미국에서의 상향회 6월 대회와 같이 인기있고 유명한 모임이다. 이것은 젊은 개종자료를 비롯한 청소년에게 큰 기대가 걸어지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다. 게르만 민족의 교회를 방문한 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젊은 청년들을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 “어느 곳에 놓아도 재능과 충명을 갖춘 사람”, “특별히 영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다.

확실히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교회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순수

„사랑과 기도의 시편들” 중에서

석 원 용 지음

눈이 내립니다

봄은 오고 있습니다

목숨의 조요로운 뜻이여

그러나 봄은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슬픔이 하그리 많아도

추위가 스며듭니다

눈이 내리는데도

우리 고됨이 하그리 많아도

그러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추위가 스며드는데도

소망은 숨결로 피어 빛무리져

밝아 옵니다.

<관리 감독단 페이지>

관리 감독단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나는
정말로
누구냐?

“남자와 같이

<관리 감독단 페이지>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 몇 십년 전만 하여도 일반적인 동력의 근원은 문자 그대로 마력이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지만 농부가 잘 길들인 말로 밭을 갈고 진초를 나르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흔히 쓰는 마구에는 말이 오른 쪽이나 왼 쪽을 보지 못하고 오직 앞만을 보도록 말 눈 옆을 가리는 눈 가리개가 있다. 이 눈 가리개는 말을 몰거나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한다.

이와 흡사한 방법으로 사탄도 인간에게 눈 가리개를 씌워 좀더 쉽게 조종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실로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는 사람들이 육을 얻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가리고자 하며 죽은 후에도 육으로 있을 때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한다. 그의 희망은 사람들이 이 생은 그대로 주어진 것만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가 옹호하는 철학은 물몬경의 예언자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는 내일 죽으니……”(니파이 이서 28:7)라는 것이다. 이 철학은 오늘날 성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읽고 본 바로도 젊은이 중에는 약, 부도덕 및 모든 형태의 타락으로 그들의 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실로 누구라는 것과 각자 행동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탄은 각 사람이 자신이 실로 누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생기는 힘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생을 볼 수 있으며 사탄의 계획은 무익하고 저주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구세주도 자기가 정말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에도 그는 아버지의 사업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누가복음 2:49 참조)

구세주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리하여 이에 따라 행하였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말씀”이라 일컬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서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 복음 1:1-5, 14)

구세주는 악과 유혹을 완강히 거부하셨으니 이것도 역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구에 오기 전에 그와 함께 살았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확인하였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로마서 8:16)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마서 8:17)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로마서 8:14)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실로 누구라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가능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베드로가 공언한 대로 “.....선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소유된 백성.....”(베드로 전서 2:9)인 것이다.

여러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니파이 족의 젊은 장군인 몰몬이 타락한 니파이 백성중에서 성임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성임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도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지도자란 참된 비존,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것을 부단하고 굳건한 태도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젊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간에,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처럼 삶의 목적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인 것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께서 읊에게 주셨던 말씀이라 하겠다. “남자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세상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관한 간증을 가져야

하며 만일 이에 대한 간증을 가졌다면 이 사실을 세상 사람에게 널리 외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실로 누구임을 영적 증거를 통하여 알고 무한한 확신과 힘을 얻었던 사람의 가장 좋은 예에는 가난한 시몬(후에는 베드로라 불리움)이라는 어부가 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실 그는 “무교육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는 때때로 충동적이며 거칠기까지 하였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의 전도기간 동안 구세주와 함께 하고 있기는 했으나 가혹하고 비극적인 그리스도 수난의 시간이 왔을 때에는 구세주와의 관계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십자가의 수난 후에 베드로는 구세주 사명의 외형적 본질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심을 품고 다시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으나 주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사명에 관한 참되고 영원한 비존을 가질 때 위대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드디어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간증을 얻었으며 이 순간부터 그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다. 동요된 상태에서, 확신도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강한 확신으로 임하였으며 통치자 앞에서 증거하였으며 길거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잠시 동안이나마 베드로를 농락하였던 것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혼란되고 눈멀게 하려고 분투 노력하는 것이다. 사탄은 삶의 유일한 실제 요소가 세상적인 추구와 쾌락 뿐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만일 사탄이 우리의 영원한 견해를 흐리게 하고, 어떠한 대가라도 사회적 인기를 추구하도록 하며, 순간적인 전율을 구하게 하거나 자신이 실로 누구라는 것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게 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영원한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역경의 힘에 대처할 가장 유력한 방어력은 실로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가능성은 어떠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데서 오는 힘보다 더 큰 것은 없으며 이 힘을 간직한 사람은 부모, 감독 그리고 주께 어떠한 면에서도 깨끗하고 합당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실로 자신이 누구임을 밝힐 수 있으며 또한 영원한 가능성에 눈을 멀도록 한 사탄과도 싸워 승리를 얻은 것이라고 하겠다.

현대의

경전

교리와 성약

티. 에드가 라이언스

● 말일성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경전 가운데 교리와 성약이야말로 “현대의 경전”이라는 명칭을 받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물론경, 모세서 그리고 아브라함서도 회복된 때를 기준하여 본다면 현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들은 대부분 구약의 것을 다루는 과거의 경전이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만은 그 근원에 있어서나 포함된 말씀이 현대적이다. 그것은 현 회복된 경륜 시대의 기초적 경전이다.

성경, 물론경, 모세서 및 아브라함서가 모두 귀중한 경전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어느 것도 복음 이해에 완전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리와 성약에 포함된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4권의 경전을 통하여 교회 교리의 일반적 개념 이상

의 것은 알기 힘들다. 예를 들어 신권, 신권의 권능, 조직 그리고 기능,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성찬의 본질과 목적, 건강에 대한 주님의 율법인 지혜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은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는 의무, 내세에 있을 영광의 계층, 연구와 신앙으로 지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교의 필요성, 결혼성약의 영원성에 관한 교리, 영원한 발전에 관한 교리——이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교리와 성약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말일의 계시로 얻은 지식으로 교회 회원은 다른 경전을 연구할 수 있으며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숨겨진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사이에 의미를 체득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리와 성약은 이중의 목적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현 신권 시대의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이 그 하나이며 다른 경전에는 모호하거나 불완전하게 기록된 가르침을 깨우쳐 주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경전 중에서 교리와 성약은 말일 성도들이 가장 친근히 하여야 할 경전인 것이다.

여기에 발췌한 내용은 이 한 권의 현대 경전과 친근히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서론 구실을 하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제 1편. 이것은 교리와 성약에 대한 “주님의 머릿말”로서 계시를 준 이유에 대하여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시 교회의 회원에게 부과한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2. 제 4편. 이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부친에게 준 계시로 선교사업을 위한 부름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인격을 열거하고 있으며 현 신권시대에서 교회의 선교사업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영감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하여 왔다.

3. 제 13편. 이 짧은 계시에서는 아론 신권을 주어 권능을 부여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4. 제 20편. 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었을 당시에는 안내서, 소책자, 신앙개조나 기타 교회의 기초적 믿음과 의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제 20편은 교회의 권능, 권위, 교리와 책임의 한계에 관한 첫 공적 성명인 것이다. 이것을 “교회의 헌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5. 제 25편. 이것은 여자들을 교회 내에 지도자의 위치에 놓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말일 성도를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도록 하였다.

6. 제 42편. 20편을 보완하면서 절차, 의식, 원칙 그리고 교회 예식의 많은 것을 밝혀 준다.

7. 제 76편. 일반적으로 “세 가지 영광에 관한 시현”으로 알려진 이 계시는 실제로는 7개의 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중에서 6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곱째 것은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다.

8. 제 87편. 이 계시는 보통으로 “남북 전쟁에 관한 예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말이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다. 비록 이 계시가 남북 전쟁을 예언하기는 하지만 남북 전쟁은 많은 인류 가정에 고통을 줄 많은 전쟁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

9. 제 88편. 이 계시는 교리와 성약에서 가장 길고 위대한 계시 중의 하나이다. 이 계시로 “예언자의 학교”가 생겼으며 교회가 생긴 이래로 추구해온 교육의 전형을 보여 준다. 미국에서 말일 성도가 다른 미국인보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 계시가 우리의 선교사 제도와 일반 성

도로서의 지도력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10. 제 89편. 보통으로 “지혜의 말씀”이라 부르는 이 계시는 “건강에 관한 주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1. 제 93편. 생활에 대한 말일 성도의 철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계시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가르친 바 생명의 영원함을 설명하는 기초가 된다.

12. 제 107편. 이것은 신권에 대한 위대한 계시다.

13. 제 121편. 신권의 권능과 정신을 아름답게 설명한 계시.

14. 제 130편 및 제 131편.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설교에서 발췌한 이 두 계시에는 교회의 특이한 가르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고대 복음의 새로운 회복이라 할 수 있는 옛날의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같은 목소리

위엄있는 목소리와 말이 사랑의 목소리와 말과 같을 때, 그것은 어린이를 복종과 크외에도 바람직하고 유쾌하고 마음에드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애칭을 부르며 귀여워 해주는 것 이상의 뜻을 포함한다. 어린이가 한 일에대한 칭찬,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도록 하며, 다시 시도하도록 격려하며, 느린 발전도 용납하며, 실패에도 꾸짖지 아니하며, 희열에 넘친 포옹과 기대치 않은 미소를 주며,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두려워 떨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율과 경고를 하며, 사랑의 벌을 주며, 두려울때 위안을 주고, 소풍, 자리에 들기전의 이야기, 어린이가 성인 세계를 배우는 동안을 참아주는 이 모든 것이 그것에 포함된다.

(익명)

주인 학교 페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것

리드 에이취, 브랜포드

●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교리와 성약 1 : 1 ~ 2).

때때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잊는다. 친구거나, 자녀거나, 어디에 있는 남자거나, 여자거나,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인것이다. 창조주께서 그를 마련해 주신 성장, 축복, 구원, 승영 그리고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 부인되는 일이 허다하다.

눈 속의 치퍼*

살을 에이는 듯한 2월 아침은 비극으로 시작됐다. 눈 온 아침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밀포드 코너스 버스 뒤를 따르며 학교에 가고 있었다. 이 버스는 정류장도 아닌 호텔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 했다. 나는 쓸데없이 기아를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은근히 화가났다. 그런데 한 소년이 버스에서 비틀거리고 나와 몇 걸음 걸더니 차도와 보도 중간의 경계 돌 위 눈에 쓰러졌다. 버스 운전수와 나는 거의 동시에 소년에게로 다가 갔다. 소년의 여위고 움푹 들어간 얼굴은 눈과 같이 창백했다.

“죽었구나” 운전수는 중얼거렸다.

실로 순간적인 일이었다. 나는 재빨리 학교 버스에서 머리를 내놓고 굳은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던 학생들을 쳐다 보았다. “의사를! 빨리 호텔에서 전화 좀 해줘.”

“소용없소. 죽었다지 않았소.” 운전사는 소년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내려다 보았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거든.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정말 괜찮아요, 호텔에서 내려야 해요. 미안합니다.’ 온순한 목소리로

변명하는 것같이,”하고 중얼거렸다.

이러한 소식이 학교에 퍼지자 웃음소리와 슬렁이던 아침의 소음은 잠잠히 가라 앉았다. 나는 여학생이 모여 있는 옆을 지나갔다. “그게 누구래? 학교 오다가 누가 죽었데?”하고 낮은 소리로 누군가가 묻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이름은 모르지만 밀포드 코너스에서 오던 남자래.”하고 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년이 누군지 몰랐다.”

교무실과 교장실에서도 같았다. “당신이 학부형에게 좀 전해 주었으면 좋겠소.”하고 교장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집에는 전화도 없을 뿐더러 어쨌든 학교에서 사람이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소? 선생 시간은 내가 맡아 주겠소.” “제가요? 교장 선생님이 가시는 편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고 반문했다.

“나는 그 소년을 모르오. 그리고 작년에 그 소년은 당신을 좋아하는 선생란에 기록했었소.”하고 교장 선생님은 얼굴 색도 변하지 않고 이야기했다.

나는 눈과 추움을 무릅쓰고 고약한 계곡 길을 지나 이반즈 가족이 사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장본인인 크리프 이반즈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가 좋아하는 선생! 나는 생각해 보았다. 이년 동안 그는 내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모습을 잘 기억할 수 있었다. 오후의 내 문학 시간에 마지막 줄에 앉아 있던 그는 혼자 교실에 들어왔다가는 혼자 떠나곤 했다. “크리프 이반즈”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결코 말하지 않는 소년” 잠시 동안 생각해 보았다. “결코 미소를 짓지 않던 소년.” 웃는 얼굴을 한번도 본 일이 없었다.

커다란 목장의 부엌은 깨끗하고 따듯했다. 나는 그 사실을 나도 모르게 불쑥 꺼집어냈다. 이반즈 여사는 조용히 의자로 다가가 섰다. “그는 병으로 피로워 하면서도 결코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의붓 아버지는 큰 소리로 “그 아이는 내가 이 집에 온 이래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읍니다.”고 지껄였다.

이반즈 여사는 냄비를 난로 뒤로 밀어 놓고 앞 치마를

* 진이. 미저 작 “눈 속의 치퍼”는 미 교육연합회 간행물 1964년 11월호(통권 53호) 8-10 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이 작품은 1964년 교사작품전에서 1등을 하여 1,0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지만 인물의 이름과 위치는 바꾸었다. 전체허가 필.

끄르기 시작했다. “계속해” 그의 남편이 끼어들었다. “마음에 가기 전에 아침을 먹어야 하겠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소. 크리프가 그렇게 바보만 아니었던들 우리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는 했을꺼요.”

“너는 아무 것도 아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는 쓸쓸하게 내 앞에 펼쳐진 기록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나는 기록을 마치고 학교에 제출할 사망기록서를 쓰기 시작했다. 거의 공백으로 남은 기록서는 나의 노력을 비웃는 것과 같았다. 크리프 이반즈는 법적으로 의붓 아버지에 입양되지 않았음, 이복형제 자매가 다섯임, 이러한 미약한 자료의 열거와 나쁜 점수의 열거가 내가 채울 수 있는 기록의 전부였다.

크리프 이반즈는 아침에 조용히 등교하였다가 저녁에 조용히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어느 클럽에 속하지도 않았다. 단체활동에 참가하지도 않았다. 공적을 가져 본 일도 없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어린이같이 행복하고 소란한 행동을 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한 소년을 낮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학교의 성적이 나를 일깨워주었다. 일학년과 2학년 성적에 대한 교사의 주석을 보면 “귀엽고 수집을 타는 아이” “집 많으나 열심히.”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3학년 성적을 낸 교사가 공격을 시작했다. 어떤 교사가 달필로 다음과 같이 썼다. “크리프는 이야기를 하려하지 않음. 비협조적임. 이해의 속도가 느림”. 다음 학기에서는 “멍청함.” “기지가 없음”: “지능 지수가 낮음.”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모두 옳았다. 제 9학년에서 나온 이 소년의 지능계수는 83이었다. 그러나 3학년에서 낸 그의 지능지수는 106이었다. 이 계수는 7학년까지 10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비록 수줍고, 겁이 많았으나 귀여운 소년에게도 사실 한계는 있었다. 이 한계를 낮추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나는 타이프로 가서 교육이 크리프 이반즈에게 미친 영향을 사실 그대로 지적하여 신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하나는 교장 책상 위에 던져 놓고 다른 하나는 슬프고 낡은 서류철에 끼워두었다. 문을 쾅 닫고 나왔지만 기분전환이 되지는 않았다. 작은 소년이 내뒀을 계속하여 따라오고 있다. 여위고 창백한 얼굴의 소년, 퇴색한 바지를 입은 마른 소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추구하다 이제는 아주 감아버린 커다란 눈.

나는 얼마나 이 소년이 놀이에 빼돌림을 받았으며, 얼마나 자주 어린이의 껍속말에서 제외되었고 부탁 한번 받지 못하고 지냈는가를 추측할 수 있겠다. 나는 “너는 바보야” 너는 바보야 크리프 이반즈야 너는 아무 것도 아니야.”라고 지껄여대는 말 소리와 조롱의 얼굴을 듣고 볼 수 있었다.

결의와 도전

어린이는 무엇을 믿고자 하는 존재다. 크리프 역시 의심

없이 많은 것을 믿었을 것이다. 무언지 모르게 나는 다음 사실이 아주 명백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크리프 이반즈를 위해 남아있는 것이 드디어 하나도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눈 위에 쓰러져 저 세상으로 갔던 것이다. 의사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판단할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단이 나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친구로서 크리프의 장례식에 참석할만큼 그와 친숙했던 사람이 열도 안되었다. 그래서 학생 간부와 저학년 대표가 예의상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단체로 교회에 참석하였다. 나도 그들 틈에 끼어 장례식에 참석했다. 나는 그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찬 납덩어리가 가슴 속에 얽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느꼈다. 아울러 큰 결심이 자라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크리프 이반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또한 그때 형성된 결심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매년 그리고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나의 도전 목표가 되었다. 나는 반에 들어가면 혹시 낯설은 학생이 있는가를 주의깊게 찾아 보고는 했다. 나는 눈을 피하거나 동떨어진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학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는 했다. “학생들 주목하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제가 급년에 여러분을 위해 할 일이 그렇게 없을런지도 몰라요. 다만 제가 하고 싶고 또 원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회와 학교 당국과도 맞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을 무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대부분——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대부분의 경우 나는 성공하였다.

각 사람에게 그의 권리를 주라.

각 사람에게 그의 권리에 따른 기회를 주라는 원리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 가능한 방법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비교. 만일 내가 부모라면 모든 어린이가 많은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역시 어린이마다 특별한 기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인가? 최근에 한 학생은 자기 부모님이 화학 분야의 제일인자이며 우수한 공적을 세운 자기형 이야기를 귀가 아프게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이 학생은 형과 같은 재능은 타고 나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도 다른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이 소년이 유명하게 되든지 않든지 개의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잠재능력을 찾고 성취하도록 도와주며 아울러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이 소년도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위치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모두를 신성한 존재로서 용납함. 세상에서는 그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때로는 용납되기도 하며 부인되기도 한다.

언젠가 나는 친구의 차를 타고 함께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다. 모임이 끝난 후에 그는 교회역원에게 봉투를 전하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봉투를 전해 주는데는 일본도 안걸리는데 잠시 기다려 주겠나?”

“다녀오게”

추운 겨울 밤이었는데 그가 자동차 열쇠를 가져갔기 때문에 발동을 걸어 히타가 작동하도록 할 수가 없었다.

5분이 지나고, 반 시간, 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한시간 반이 지났다. 그제야 오더니 “이제 됐으니 갑시다” 하는 것이었다.

그와는 오랜 친구였고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나는 껍질없이 불평을 토하였다.

“나를 오해하지 말아 주게. 그러나 한 마디 묻고 싶네. 이것은 나로서는 중요한 원칙에 관한 의문일세.”

“종도록 하게, 그 의문이란 무엇인가?”

“만일 중요한 교회 지도자가 자네가 봉투를 전하여 주

는 동안 차속에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 그렇다면 자네는 이 속에서 한 시간 반이나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겠나?”

모든 사람이 하늘 아버지에게는 중요하다.

구세주께서는 말씀하셨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앳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 : 29 • 31)

또 말씀하시기를 :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 : 12, 14)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사랑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 ○

성찬식 전주곡

Robert Cundick

Andante

3월 성찬식 성문 봉독

장년 주일 학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 복음 12 : 3)

유년 주일 학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요한 복음 14 : 15)

4월 성구암송 및 이분반

6일 히브리서 12장 9절 (야고보반)
13일 누가복음 24장 12절 (복음의 멧세지반)
20일 신명기 5장 11절 (야고보반)
27일 에베소서 6장 13절 (복음의 멧세지반)

요한 1서 3장 2절 (기초교리반)
 니파이 2서 9장 22절 (요한반)
 신앙개조 제 5 조 (기초교리반)
 교리와 성약 1장 37~38절 (요한반)



적은 일이 중요함

루이즈 떠블유. 메드슨

● “사소한 일이 완전을 낳지만 완전이 결코 사소한 것은 아니다.” 미켈란젤로가 그의 걸작 조각품을 만드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는 친구의 질문에 한 대답이다. 다시 손을 대고 닦으며 모양을 부드럽게 하거나 근육에 힘을 더 주며 입술에 더 많은 표현을 담고 옆구리에 더 큰 정력을 주기 위해 그가 소비한 시간은 아름다움과 우수함이 길이 간직되는 걸작을 낳은 것이다.

우리는 생활에서 어떤 일이 조그만 것이며 어떤 것이 중대한 것이라고 실로 분간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말하는 작은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장래를 바꾸고 다른 사람의 우리에게 대한 인상을 바꾸는지 모른다.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완전함에 도달하는 데에는 커다란 일 뿐만 아니라 조그만 일도 의미를 갖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두 모여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내는 조그만 일이 중요하다. 조그만 불완전은 아름다운 업적의 가치를 줄이는 것이다. 관현악의 불협화음, 그림에서의 조화를 못 이룬 채색, 합창에서의 거치른 목소리, 적당치 못하게 들어가는 번쩍번쩍하는 색깔의 얼룩이 모두는 조그만 일이기 는 하지만 충만한 아름다움을 제거하는 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인격의 불완전함은 자기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

조그만 일도 보는 사람의 눈에는 큰 일로 나타난다. 조그만 결례는 일상 그렇게 처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자기에 대한 평가를 작게하는 것이다. 아름답게 계획된 파티가 주인 여자의 단 한 번의 불친절한 행동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의 방문이나 계획만을 주장하여 딱딱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매력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 평은할 때는 물론, 긴급한 때에도 변치않고 친절해야 할을 숙녀의 속성이라 하겠다. 아름다운 의모도 아름답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망칠 수가 있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언제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치장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몸치장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의 사람도 있으며 용모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불행해보이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옷치장을 한다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흔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소홀히 하는 예가 많다.

어린이의 잘못을 고쳐 주면서 높은 소리를 지르거나 성난 표정과 몸짓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다. 생각없는 어머니는 자기의 태도를 보는 사람을 슬프고 실망하게 만든다. 잠시 동안의 현명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인상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법이다. 오늘날의 소위 “우연한” 생활에서는 더 큰 정중함에 대한 필요성, 더 높은 고상함에 대한 유의, 아름답게 살려는 더 큰 욕망, 자신이 용납할 수 있는 태도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말할필요도 없다. 이 모든 것이 조그만 일이기 는 하지만 완전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민감성은 필히 존경되고 추구하여야 할 자질이다. 민감성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느낄 것인가를 알려는 이타적인 노력이다. 그것의 본질은 자신을 이 지식에 맞추는 것이다. 이 자질을 터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화하여 지낼 수 있으며 그들의 확신을 코칭시키어 자기의 개성을 크게하는 것이다. 민감성은 “작은 일” 중의 하나로 중요한 것이다.

주께서는 적은 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베풀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태복음 25 : 21)고 말했다. 적은 일을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고상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



<청소년편>

기도의 초상화

데니즈 드레이크

●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불멸의 안내자되시는 분과의 영적 통로를 여는 것이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기도란 “영의 전달이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의 진동인 것이다.”라고 하셨다.

기도는 우리의 발전을 예언할 수 있다. 만일 기도가 우리가 의도하는 바의 청사진이라면 기도는 분명 우리 각자의 최선의 것을 명백히 이야기해줄 수 있다.

기도는 깊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더욱 깊은 생각을 낳는다. 그것은 지혜를 여는 열쇠이다. 예언자 요셉은 모로나이로부터 “기도하기를 잊지 않아 너의 마음이 강하게 되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기도는 신앙을 요구하나, 신앙을 키워주며 우리 각자가 감사, 겸손, 소망의 느낌을 경험하도록 한다. 기도는 생활의 책임을 서로 나누는 것과 같아서 세속적인 짐으로부터의 안식을 마련하여 준다. 그것은 상쾌한 처방이고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의 반대이며 더욱 영적 노력을 가능케 하는 촉매와 같은 것이다.


기도는 자신을 정직하게 분석할 기회를 준다. 그것은 자신을 사실에 입각하여 바르게 평가하는 능력을 가르친다. 즉 이웃 사람, 사무실 친지 혹은 졸업반의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또 자신이 받은 “재능”과 이것을 활용한 것에 따라 평가된 개인으로서 삶의 경쟁을 얼마나 잘 하였는가 하는 판단을 하는 능력을 가르쳐 준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재(實在)를 가르치며 실제로 그것을 통하여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은 신앙의 간증이며 매일의 자서전이고 개인의 초상화다.

기도는 어떠한 의심도 해결하고, 어떠한 두려움도 제거하며, 안내해 주며 고무시켜 주며 영원한 진리를 가르친다.

실로 신은 죽었는가? 그에게 물어보라!

○



편집자주 : 라인 베이커는 16세 된 소녀의 예명이
다. 이 소녀의 슬팠던 경험은 이 처럼 감동적인
표현으로 성인에게 던져질 수 있었다.

듣는데 인색하지 말아요

라인 베이커

기꺼이 들어주십시오. —내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시간 후가 아니라, 아침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한 밤중에 찾아온 것은 할 일이 따로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무엇이든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지 않는 법입니다. 만일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어버린다면 그것은 곧 대화할 기회를 줄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맨 뒤로 밀쳐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들은 세탁하는 일, 혹은 집회에 참석하는 일, 심지어는 잠자리에 드는 것보다도 중요한 순위에 있고 싶어합니다. 부모나 감독이 사용하는 말에서 “후에”라든지 “시간이 있을 때”라는 단어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중요한 문제입니까?” 혹은 “오래 걸립니까?”고 묻지 말아야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의 감독님은 반드시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시거든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최소한 그 사람에게게는, 혹은 우선 피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처사는 마치 무엇인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사람이 정당하거나 않거나 간에 그것 자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기가 어느 정도는 두려워하게 되지만요. 그 문제가 젊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10분 혹은 세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라도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 되게 하십시오. 절대로 중간에서 막아서는 안되요.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들으실 때는 정말로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무엇을 먹고 싶든지 그 외 다른 것에 절대로 생각을 날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혹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듣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처방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방을 내릴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겠어요. 그들에게 마취약에 정신

을 쓰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적어도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그것에 몰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직 불신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육체적 탐닉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헤로인(마약의 일종)의 복용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불순한 수단으로 모든 일을 차지하게 하며, 옳지 않은 무리와 함께 있도록 하며, 자신의 간증을 과대평가하며, 자신의 표준을 낮추게 하여 전에는 행해보려고 생각하지도 않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잃게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귀어 보고 싶다는 의욕조차도 상실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자신은 타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도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항상 고독한 사람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맙니다.

성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거나 젊은이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정정하기 전에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어린 사람쪽도 마찬가지죠.

때때 도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물론 논리적으로 그런 것은 모두 지적하여야겠지요. 그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만일 여러분이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계속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아시겠지만 과거의 결점을 상기시키지 말아주세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더 향상하겠다는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 여러분의 간증을 자주 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따르겠다고 여기지 않게 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지도 않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친절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제가 믿을 수 있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몇몇 교회 회원들이 제게 보인 큰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때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은 얼마나 훌륭할까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역시 이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첫 기도에 놀라운 답이온다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기다리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긴급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지금 도와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면 필요한 도움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만일 제가 옳은 일을 하여서 얻은 화평과 행복을 히피족이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만 있다면, 또는 하나님께서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기도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며, 적어도 하나님쪽에서는 응답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약은 지혜의 말씀에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할만큼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헤로인과 그 외에 약들은 좋다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한 잔 술은 맥주보다 낫다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맥주도 인정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 위의 변명의 발붙일 곳은 어디겠습니까?

행복이란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이는 그렇게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자아(自我)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가봐요.

다른 사람을 뒤로 밀쳐놓는 것은 아주 쉽지만, 이것이 곧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조만간 최선을 다하여 행하며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이것으로 자신의 마음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강한 간증, 좋은 친구, 그리고 복음의 원리와는 관계가 없는 생활 태도로부터 오는 불행을 당해 보지 않은 청소년이 있다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처지에만 몰두하여 그러한 행운을 갖지 못한 친구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들도 재능, 힘, 그리고 약점을 지녔으나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찾고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쁨은 클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히피가 되어야겠구나”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초기일수록 도움의 효력은 강합니다. 내가 머리를 기르고, 종을 몸에 달며, 썬달과 미니 스커트를 입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어느 사람이 내 어깨에 팔을 얹고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과, 히피가 되어 사람들의 주의를 끌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주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코 농담 비슷하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조소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들에게 악하다든가 친구가 그렇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기 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반항심은 상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누구도 또 다시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을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해고 당

(22페이지 우측 하단에 계속)



“미운 오리새끼”의 한 장면(왼편).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서있음)이 기술학교 학생(휠체어)을 돕고 있다.

꿈만으론 불충분하다

도나 그레고리

●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젊은 사람들은 생활의 목적을 찾고 있다. 대부분은 유용한 인재가 되어 봉사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고자 한다. 최근 미국 유타주의 학생 몇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밝힌 일이 있었다. 그들의 노력으로 저능아에 대한 두려움과 의문의 신비가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년 전에 그들은 유타주 아메리칸 포크에 있는 유타주립 저능아 기술학교의 방문을 권유받았다.

래리 콕스와 더스틴 카시는 그곳에도 보통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이곳의 어린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남에게 주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적도 적었지만 친구도 극히 적었다. 래리와 더스틴 그리고 이들 어린이들 사이에는 곧 사랑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 두 사람은 그 학교의 상향회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주일 오후도 그곳에서 보냈다.

그들은 곧 대부분의 아이들이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포부가 큰데 저으기 용기를 얻었다. 비록 더스틴과 래리는 자격증이 있는 교사는 아니었지만 부족한대로 지식을 서로 나누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 중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아이, 리듬에 뛰어나게 민감한 아이, 글을 잘 읽는 아이가 있었는



이곳의 아동 주간의 음악회에서 독창을 하고 있다.

더스틴 카씨, 래리 팩스, 캐롤 앤 숄스터



가 하면, 우스운 말을 잘하는 아이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재능을 부여 받은 아이들이란 것이다! 두드러진 장애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연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학교에 세워진 새 예배당 헌납식에서 휴 비. 부라운 부대관 장께서는 “저는 어느 면으로 보던지 저보다 우수하지 못한 사람을 결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다.

휠체어에 앉아 다녀야만 하는 한 어린이가 앞으로 연극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연극에 참가하겠다는 아이의 대부분이 휠체어에 앉아 다녀야만 했으며 개중에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더스틴으로서는 적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해하였고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로부터 용납되기를 모두 바라고 있었다.

더스틴과 래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어린이들을 선보인다는 것은 꿈만 같았다. 그들의 재능, 사랑 그리고 감상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이쑤시게로 산을 움직이려는 것과 같이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던 어느날 오후 브리감 영 대학교 연극예술과 재학 중인 유명한 여학생 태머라 파올러가 희곡, “미운 오리새끼”를 학교 실험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다.

더스틴과 태머라 사이에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학생들이 사전에 대화한 것을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어린이들은 대사에 따라 입만 움직여가도록 하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더스틴, 태머라, 래리 그리고 그 외 몇몇 대학생들은 밝은 색깔의 옷을 어린이들이 입으면 주의가 어린이에게 집중되므로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옷을 입히기로 하고 정말 “별”을 장면이 바뀔 때마다 쿨리기로 하였다.

그것이 효과를 냈을 뿐 아니라 입추의 여지없는 공연이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미운 오리 새끼의 성공으로 브리감 영 대학에는 이상 어

린이 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유능한 유대인 개종자인 캐롤 앤 숄스터도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아보려는 여자였으며, 뉴욕시에서 직업 간호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직업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 그는 브리감 영 대학에 연극과 3학년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시원치 않아 포기하려 하였을 때 더스틴과 래리 그리고 신체의 장애를 그대로 방치당한 채로 버림을 받게 된 불구 아동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모든 정력과 재능을 이 방향에 기울인 캐롤은 어린이 합창, 독창과 리듬 밴드 등 175명이 출연하는 불구아동 연주회를 계획하고 지도하였다.

연주가 끝난 다음 청중들은 무대 뒤로 몰려들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밝은 면을 보여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려 한 것이다.

오늘날 꿈으로 시작된 것이 기꺼이 일하려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현실이 가능하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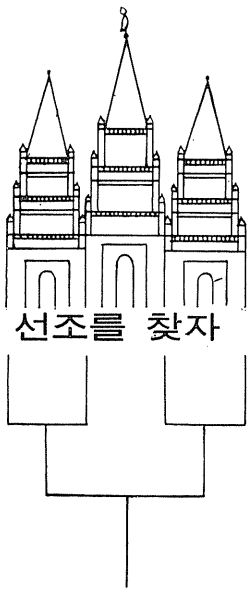
(20 페이지의 계속)

상하게 할 수 없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해고당하기 전에 사직하는 친구와 같이 “나를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겠소. 오히려 내가 먼저 거절하겠소.”

히피족도 역시 같은 욕망, 필요 그리고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며 그 사실을 이야기하여 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곳에 있어주어야 합니다. 결코 너무 바쁘게 되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지 마세요. 그들 장래를 믿고 있다는 감정을 표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한 개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언제나 도움을 찾아 오도록 하지 말고 그들을 먼저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공하며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새롭고 간편한 방법

— 신전사업을 위한 성명 제출 방법 —



● 본지의 여러 페이지에 걸쳐 게재된 수차의 공과에서 산자와 죽은자의 구원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적인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여 온 바 있다. 이 예언자 이래로, 특히 과거 10년 간에는, 이 중요한 사업에 큰 역점을 두어 왔다. 이 사업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다시 한번 성도들을 영적으로 환기시켜 주님의 사업에 재차 헌신하도록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바이다. 자기의 죽은 친족의 구원을 위한 노력은 큰 특권이 아니겠는가? 이 사업은 우리 마음 속에 신앙의 불이 다시 일도록 함은 물론 우리 가족과 친족에 대한 사랑도 다시 일깨워 준다.

계보 위원회는 신전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긴급한 목적과 선조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성스러운 책임을 수행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75년 전에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의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오늘날 신전 기록 색인국에는 신전 사업을 마친 36백만 매의 카드가 정리되어 있고 인봉을 마친 6백만 가족의 기록이 계보 위원회 기록 보관소에 있으며 수 백만 명의 이름이 보관되어 있어 앞으로의 의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이 성장하고 신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도들은 선조를 찾는 일에 더욱 큰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세상의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던지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모인 교회의 회원들은 새로 자란 신앙의 힘으로 돌아간 선조의 구원에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욕망을 마음 속에 간직하게 되었다.

교회 인구의 팽창에 비례하여 자연히 생기게 된 필요요성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방법이 구상되어야 했던

것이다. 대관장단의 지휘로 계보 위원회에서는 수 년 동안에 걸쳐 이 사업을 간단히 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을 예의 검토, 시험 하여 왔다. 교회의 회원들이 자료를 좀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검토의 수 년이 지나고 교회 지도자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신전 사업에 필요한 성명 제출에 새롭고 간단한 방법을 마련하여 교회의 회원들이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 제출 안내서라는 이름이 붙은 안내 소책자는 곧 스테이크와 선교부로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1969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체제를 설명하고 교회의 모든 회원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자세히 밝혀준다.

1968년 10월 3일 대회가 열리기 얼마 전에 있었던 모임에서 계보 위원회 부회장인 디오도르 엠. 버튼 장로는 십이 사도 지역 대표에게 신전 사업을 위한 개인의 성명 제출에 관하여 새로운 계획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이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한 가족 전원이 모여야만 수행되던 신전의식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행해지며 부모에게 자기를 인봉하게 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로운 계획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장점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버튼 장로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

그는 75년 전 계보 위원회가 조직된 이후의 역사를 고찰한 후 사진과 도표로 이 사업이 크게 성장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선조를 찾는 일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므로써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하여 주님이 지적하여 주신 바 성스러운 목적을 성도들이 수행하기에 필요 불가결한 더욱 빠르고 쉬운 기록 작성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주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관심을 보여 오셨다.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라는 도구를 통하여 대체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일의 수행에 따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시켜 왔다. 이 발전은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동반하였다. 교회의 회원 수가 증가하여 주님의 영은 지상을 가로지른 것과 같이 되었다. 회원의 증가에 수반하여 필요에 따라 여행, 통신, 출판의 새로운 방안이 개발되었다. 교회가 처음 발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께서는 영감과 빛을 세상에 보내셔서 기차, 자동차, 기선, 비행기, 타이프, 라디오, 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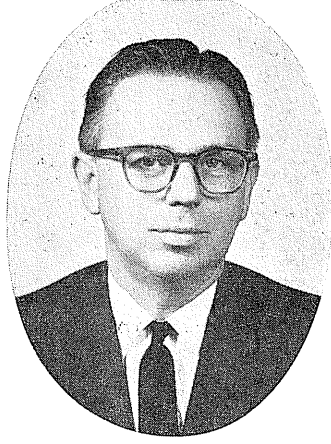
레비 그리고 현대 전기 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주께서 성도들에게 하도록 하신 일, 특히 성도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빛과 진리를 언제나 풍성히 마련하여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계획이 소책자의 형태로 세상에 나왔으니 신전 사업을 위한 일에도 급격한 증가가 기대된다. 정규가족 전체 기록서를 가지고 착수한 사람은 지금부터 1969년 7월 1일 사이에 일단 종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을 마치게 되면 계보위원회로 보내서 수속을 밟도록 한다. 1969년 7월 1일이 지나면 위원회에서는 구체제에 의한 가족 전체 기록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계보 위원회는 이미 접수된 일을 처리하고 신전 사업을 완결하게 된다. 즉 7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는 계보 위원회에서 기록을 일체 받지 않고 서류철을 정리한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개인 등록 양식만을 받아들인다. 개인 등록 양식에 대한 새로운 계획에 보면 가급적 많은 기록을 보내어야 한다. 그렇다고하여 가족 전체 기록상에 변경되는 점은 없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는 이름과 전체 가족의 자료 제출이 용납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한 자료만으로서 그 가족의 일원인 것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나 여러 자료가 있어야만 그것이 입증될 수 있을 경우에는 가족과 개인 기록 양식을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 기록서를 여러 개의 수집된 자료에서 발췌, 제출한다.

1969년 10월 1일부터는 개인 체제라고 불리우게 될 새로운 계획에 맞추어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은 이것이 간단하고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체제는 권위자가 되어야 조상을 찾을 수 있다는 관념을 벗어날 것이며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근원이 되는 자료에 접근할 기회를 준다. 만일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의 신전사업은 행해질 것이다.

이 체제에 관련하여 이외의 자세한 참고 사항도 얻을 수 있다. 안내서를 읽는 성도들은 이것이 간단하고 쉽게 활용되도록 쓰여진 책자이며 신전 의식을 위해 이름을 제시함에 있어서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선교부장 서 현 보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 5 조)

교리와 성약에서 주제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무릇 게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신임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교성 107 : 99~100)

한국에서의 교회역사는 아주 짧습니다만 충실한 성도도 많고 교사나 역원의 직책을 맡아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성도도 많습니다. 짧은 수년의 경험으로 역원의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1835년 요셉 스미스 선지자가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의무를 배우라”고 하신 권고의 말씀의 그 절박하고 의미심장한 뜻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의 연령은 겨우 다섯 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부의 연령을 살펴보면 이제 몇주 된 것도 있고 (전주가 지난 2월에 지부로 조직되었음) 수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지는 초창기의 교회의 그것과 아주 흡사하며, 위에서 언급한 경전의 말씀은 한국에서 더욱 철저하게 이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때의 형제들은 자기들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축복을 내려달라고 열심히 간구했으며 우리도 저들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방향을 제시 받아야겠습니다. 아마 주님께서서는 “모두 자기의 의무를 배워 진심전력으로 일하라.”는 응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에게 부과된 직책에 따르는 임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 할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었거나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직책이 부름으로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우리가 직책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개조 제5항에 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5 : 4)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의 중요성은 교리와 성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성임”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성별”이란 말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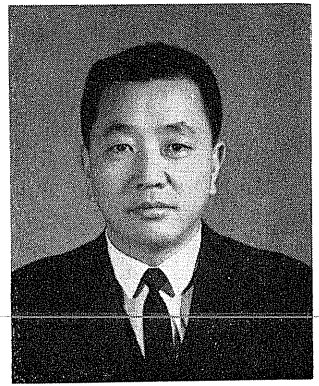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려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교성 42 : 11)

부름으로 직책에 임명되는 자에게는 역시 이러한 축복과 권능이 주어져야 하며,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들이 분명히 이 축복과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출판한 지침서, 교재, 잡지, 기타 교회의 출판물을 숙지함으로써 우리의 임무를 배우게 됩니다. 부름을 받는 자나 부르는 자 모두가 부름의 뜻을 배워야 하며 과연 그 임무는 무엇이며,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아 그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역원을 부를 때 아주 상세하게 그 임무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보고 배울 수 있는 지침서 및 기타 서적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속적인 경전연구 및 끊임없는 기도로서도 물론 배울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임무를 배우겠다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전진 방향을 열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평화롭게 이행하도록 해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십이사도의 일원이신 헤롤드 비리 장로께서는 “스스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 만큼 하나님의 왕국건설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맡겨진 부름의 소명을 잘 배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합당한 생활을 한 다음에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둘째번의 권고의

(26페이지 우 하단에 계속)

주님의 겸손한 태도



남부지방부장 배 영 천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달에는 “주님의 겸손한 태도”를 배울까 합니다.

주님은 겸손에 관하여 교훈하시고 계시지만 주님 자신이 그 완전한 모범입니다. 여기에서는 겸손한 태도 없이는 주님에게 봉사한다 함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겸손이란 말씀에 새로운 의미와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 복음 11장 28~30절은 주님의 겸손한 태도의 명확한 정의입니다.

이는 인간의 허를 통한 최대의 정신이 충만한 위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중에 요약되어 있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방문의 정신이며, 특질이며, 아름다움입니다. 이 말씀은 방황하는 세상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른 어떠한 말씀도 결코 줄 수 없었던 정도의 희망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일하고 무거운 짐 지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휴식의 원천은 불사불멸이란 말씀과 이들 불사불멸의 말씀을 진술하는 인간에 대한 신앙에서 발생하는 위안입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에 대한 단순한 어린 아동들과 같은 신앙은 희망을 고무하고 괴로운 사람들의 의지와 위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서주석자는 요한 복음 3장 3절부터 15절의 성구는 신약성서 중의 겸손에 관하여 제일 오랜 예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관찰하여 보면 이 세상에서 주님 이상 겸손함을 지닌 사람을 따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구보다도 친한 경우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며, 자신이 세상의 죄인이 속을 걸어다니셨습니다. 주님은 만인의 종이였으며, 또한 봉사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자기 자신의 봉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태도 속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빌라도로부터 “당신은 왕인가?”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전연 부정하시지도 않으시고 자기 자신 우리 모든 사람이 경건하게 배울 겸손의 특성을 구체화하셨습니다.

누구인가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부심을 잃지 않으리”라고 자신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자기보다 아래에 위치한 사람에 복종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 결점은 아닙니다. 겸허는 약한 사람의 표식은 아닙니다. 회오는 약함을 의미치 않습니다. “영원의 위대함을 먼저 느끼고 다음에 자신의 미소함을 느낀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의기소침해 않고, 자기 경시로 행하지 않고, 또한 염의나 위엄에 결핍되는 일이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요소를 그 중에 가지고 동시에 경건함과 욕구의 관념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마음의 태도이며 소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며 진리탐구자로부터 생기는 분위기를 그 둘레에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겸손은 진실고결함의 표식입니다.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 직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만치 않으며 약하지 않으며 열의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이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

(25페이지의 계속)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원으로서 가진 바 모두를 바쳐 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일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님의 은혜를 배부실 것입니다. 거듭 거듭 경전에 강조되었거니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일해야 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설정한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매사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영국 시인 로버트 사우디가 읊은 다음의 시가 뜻하는 참뜻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엔 여러 개의 길이 있으나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임무수행의 길이려니……” ○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리차드 엘. 이반스
(십이사도 정원회)

세상에는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두 가지 역설이 있으니 즉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상하게 할 수 있다든지 자신의 감정을 상하는 일 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만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그것 하나만 뽑아내려 할 때 그것이 온 우주의 모든 것과 얽혀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존 무어의 말이 생 각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부모나 자신의 일부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과 타인, 가족과 친구, 사회와 국가의 관심사 및 평판을 언제나 지니고 다닌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녀의 성공은 곧 부모의 성공이라 할 수 있으며 슬픔 또한 부모의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체력이나 정신력을 해치는 것을 취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기의 어떤 힘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그가 살고있는 세계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 힘을 상실하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사실을 어느 정도 무시한다면, 일부러 율법—건강의 법과 생의 율법—을 무시한 결과로 병이 든다든지 상처를 입는 다든지 혹은 힘을 잃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은 그를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명하여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세상은 그만큼 작아지는 셈입니다. 몇 세 기 전에 존 단이란 사람은 매우 감동적인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인용 하고 애송하여 왔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고립된 섬과 같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죽음 그것은 나를 적게 만드는 것이니 이는 내가 인류라는 테두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를 알아보려 사람을 보내지는 않겠나니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않고, 자신의 감정만 상하게 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감정이 상하 는 일 없이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이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성공했을 때이든 슬픔에 처해 있을 때이든 우리는 가족, 친구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며, 만약 우리 자신이 자 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자기의 생명을 헛되이 써버린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고도와 같은 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 키로짜 이클의 서울 중앙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